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1월 29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BIDEN 부통령과 함께 뉴욕주에서 유급 가족 휴가를 통과시키기 위한 “강한 가족, 강한 뉴욕주” 캠페인 개시**

*주지사는 신생아 또는 중병 친척의 간호를 위한 12주의 일자리 보호 휴가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긴 혜택 기간입니다*

*주지사, 제안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www.ny.gov/paidfamilyleave](http://www.ny.gov/paidfamilyleave) 출범*

*키오프 행사에서 주지사와 부통령은 500여 근로 부모, 간호인, 후원자 등과 함께 하였습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주지사가 제안한 뉴욕주에서의 유급 가족 휴가안 통과를 추진하기 위한 “강한 가족, 강한 뉴욕주” 캠페인을 Joseph Biden 부통령과 함께 개시하였습니다. 주지사는 신생아 또는 중병 친척을 근로 가족이 돌보는 것을 돕기 위한 12주 유급 가족 휴가 정책을 뉴욕주가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그러한 정책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긴 혜택 기간일 것입니다. 주지사는 뉴욕주민들이 유급 가족 휴가의 필요성과 그가 제안한 혜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새 웹사이트 [www.ny.gov/paidfamilyleave](http://www.ny.gov/paidfamilyleave)도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주지사 행정부 직원들이 이 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지를 모으기 위해 주 전역의 커뮤니티들을 방문할 것입니다.

뉴욕시 McBurney YMCA에서 개최된 오늘의 출범 행사에는 Every Mother Counts의 창립자 Christy Turlington Burns와 수 십명의 연방, 주 및 시 선출직 관리들이 주지사 및 부통령과 함께 하였습니다. 500여명의 부모, 간호인, 근로자, 커뮤니티 구성원 및 후원자들도 이 제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인생에는 아이가 태어나거나, 사랑하는 이가 아프거나, 부모가 돌아가실 때 같이 가족이 먼저가 되는 때가 있는데, 본인은 누구나 그러한 때에는 그곳에 있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유급 가족 휴가의 결여는 미국의 약속에 배치되게 만연한 경제적 부정의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가족 돌봄과 일자리 지키기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 받는 것은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뉴욕주에서는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12주의 유급 가족 휴가를 통과시켜 인생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을 위해

결기할 것입니다 - 그래서 본인은 모든 뉴욕주민들이 이 투쟁에 동참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Cuomo 지사의 제안은 신생아 또는 중병 친척의 간호를 위해 일자리가 보호되는, 피고용인 기금의 12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용인이 휴가에서 복귀시 현재 일자리로 복귀할 권리를 보증하고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범위에서 차별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보증할 것입니다.

## 유급 가족 휴가의 필요성

유급 가족 휴가는 현재 지구상의 모든 선진국이 제공하는데 미국만 예외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 뉴저지 및 로드아일랜드만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누구도 6주보다 긴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방 노동부는 민간 부문 근로자의 겨우 12%만 고용주들로부터 유급 가족 휴가를 받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1993년의 가족병가법이 12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하지만 다양한 예외 때문에 약 40%의 미국인 근로자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FMLA에 의해 커버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신생아 또는 아픈 친척을 간호하기 위해 휴가를 가는 것은 종종 임금을 포기하거나, 저축 또는 휴가 시간을 소진하거나, 또는 심지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직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비정의는 특히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통렬합니다. 뉴욕주의 경우, 저소득 근로 모친들의 약 50%는 저축액이 500 달러 이하이고, 33% 이상은 저축액이 전혀 없습니다. 유급 가족 휴가가 없으면 저소득 근로자들도 아이 출생이나 가족 중병 후에 공공 부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생아 부모 이외에도 유급 가족 휴가는 사랑하는 병자, 특히 노년 친척을 돌보는 가족에게는 긴요한 혜택입니다. 커뮤니티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들의 90% 이상이 사랑하는 이들의 서포트와 케어에 전적으로 또는 유료 도움과 함께 의존하며, 미국 노인들의 2/3는 오직 가족 구성원의 돌봄을 받습니다. 노인 친척을 돌보는 사람들의 78%가 고용되어 있으며, 62%는 풀타임 근무를 보고합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기대 수명과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노인 간호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입증된 혜택 및 지원

Cuomo 지사의 12주 유급 가족 휴가안은 근로 가족, 기업 및 주 경제에 광범위하고 중요한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가족을 위한 경제적 안전성 및 더 나은 건강 결과, 기업을 위한 인력 수명 및 생산성의 증대, 그리고 모두를 위한 더 튼튼한 경제가 포함됩니다.

- **가족들을 뒷받침하는 유급 가족 휴가:** 꾸준한 소득과 고용은 신생아 또는 사랑하는 병자를 간호하는 가족과 특히 저소득 가족에게 긴요합니다. 유급 가족

휴가는 근로 가족들이 독특한 의료 니즈 및 비용에 대응하고, 일반 생활비를 충당하며, 빈곤 또는 공적 부조 필요성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경제적 보안을 제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급 가족 휴가는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근무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금 인상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유급 가족 휴가는 출생 체중 증가, 조산 빈도 감소 및 영아 사망률의 상당한 감소 같은 혜택으로 젊은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건강상의 결과를 높이는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픈 친척의 경우, 유급 가족 휴가는 또한 환자들이 처방 치료 계획 및 검진을 고수하여 합병증을 피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 **기업을 뒷받침하는 유급 가족 휴가:** 유급 가족 휴가 제공은 고용주를 위해서도 많은 혜택을 남깁니다. 연방 노동부의 연구에 의하면 유급 가족 휴가는 기업이 근로자를 유지하고 이직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채용 및 교육의 비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유급 가족 휴가 이용은 직원들 사이에 생산성, 참여 및 충성심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 **경제를 뒷받침하는 유급 가족 휴가:** 유급 가족 휴가 이용이 증가하면 경제와 인력이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근로 부모 또는 간호자들이 아이나 사랑하는 병자를 돌보면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경력에서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시간에 따라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가족을 위한 더 큰 지원, 커뮤니티에서 더 큰 경제 활동과 전반적으로 더욱 활기찬 인력이 탄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급 가족 휴가는 저소득, 소수자 및 저학력 근로자들이 직면하는 기회 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유급 가족 휴가에 대한 대중 지지 확산:** Roosevelt Institute가 실시한 최근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3%가 유급 가족 휴가를 지지하였습니다. 그 지지는 민주당편의 96%, 무소속편의 85% 및 공화당편 지지자의 67%로 당파를 넘어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유급 가족 휴가 정책이 5년 동안 시행된 후의 기업 설문조사에서 고용주의 91%가 이 정책의 효과가 괄목할 만 하거나 긍정적이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

추가 뉴스는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